구례군-구례군의회, 성삼재 시외버스 반대 대책 논의

구례군, 전남도와 함께 행정행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 검토
구례군의회, 민간 대책위원회와 함께 장기적 반대투쟁 전개

구례군은 27일 구례군의회에서 서울~성삼재 시외버스 반대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순호 구례군수와 유시문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이 참석했다.

김 군수와 군의원들은 그동안의 반대 대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구례군, 구례군의회, 민간 대책위가 유기적인 민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반대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례군은 전라남도와 함께 행정행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구례군의회는 민간 대책위와 상황을 공유하며 함께 반대 투쟁을 장기적으로 추진할계획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국토부, 전라남도, 경상남도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부당한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민 · 관 · 구례군의회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반대 대책을 함께 추진하자"고 당부했다.

구례군의회 유시문 의장은 "이번 국토부의 결정에 많은 군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구례군의회에서 민간 대책위원회와 함께 적극적인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담양소방,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최현경 서장 "화재시 신속 대피 위해 설치 해줄 것 당부"

담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올 2월부터 담양군, 곡성군 등 관내 28개 공동주택에 '화재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 홍보에 나섰다.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는 지난 2016년 2월 29일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2항'에 따라 의무 설치해야 하는 설비이다. 그러나 기존 공동주택에 소급하여 설치 할 의무는 없어 자율적인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 담양소방서 관내 공동주택 28개소 중 10개소(담양 8, 곡성 2)에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비가 완료되었으며, 설치 조건이 부적합한 대상물에는 도어락 설비, 문 상시개방 등의 대안을 홍보하고 있다.

담양소방서 서장 최현경은 "화재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를 꼭 설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아름다운 화순 8경, 음식점에서 만나보세요"

화순군, 음식점 51곳에 화순 8경 홍보안내판 설치

화순군이 지역 관광 명소 홍보와 음식점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한 '화순 8경 홍보판 설치 · 지원 사업'을 28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화순 8경 홍보판 설치 대상 음식점 22곳을 선정했다. 지난해에는 29곳에 설치했다.

군은 화순 관광 명소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화순 8경 홍보판 디자인이 방문객으로부터 호평받자 올해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순을 찾는 관광객들은 음식점 51곳에서 화순 8경을 만날 수 있게 됐다.

군은 1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한 음식점을 선정해 업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제작비를 지원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 8경 홍보판이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관광 명소 홍보는 물론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며 "음식점과 협업해 문화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토양 시료채취 자동화 기술 개발한 나주시 공무원 화제

농촌진흥청 제안 공모전…정석곤 농촌지도사 · 김애진 농업연구사 최우수상 영예

토양 검정을 위한 시료채취 작업 효율성을 높여줄 '전동식 오거'(auger)와 '시료봉투 QR코드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한 나주시 공무원이 화제다.

나주시는 농업기술센터에 근무 중인 정석곤 농촌지도사와 김애진 농업연구사가 최근 2020년 농촌진흥청 주관 '국민 · 공무원 제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토양검정 시료채취와 관련해 작업에 임하는 직원들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도구 신제품 개발과 시료 정보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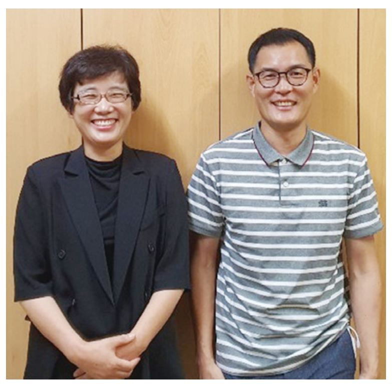
주 제안자인 정석곤 농촌지도사는 토양 시료 채취에 쓰일 전동식 오거를 개발했다.

전동오거는 채취 작업에 주로 사용돼왔던 수동식 오거에 전동기기(드릴)을 연결한 제품으로 노동력 절감과 노동시간 단축 등 작업에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토양검정은 토양의 시비 및 개량을 목적으로 토양의 물리화학적 성분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가 중요하다.

나주시는 연간 5천5백여건의 토양 필지를 분석하는데 이중 3천여건의 필지에서 시료를 직접 채취하고 있다.

정 지도사는 "여성 공직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상대적으로 근력이 약한 여성 직원들이 시료 채취 시 손목, 어깨 등 근골격계를 반복 사용해 노동 부담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전동오거 개발을 생각해냈다"고 밝혔다.



2020년 농촌진흥청 국민공무원 제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나주시농업기술센터 정석곤 농촌지도사(우), 김애진 농업연구원(좌).jpg

전동오거의 장점은 이 같은 신체적 부담 해소뿐만 아니라 균일한 깊이의 토양시료 채취에 도움을 주고 노동 시간도 크게 단축시킨다는 것이 정 지도사의 설명이다.

실제 제품 시연 결과 토지 100필지에 대한 시료 채취에 수동식 오거는 약 1시간 소요된 반면 전동오거는 사용 8분여 만에 작업을 마쳤다. 작업시간이 약 1/8가량 단축된 셈이다.

나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전동기기 관련 업체와 9월 출시를 목표로 시제품 개발에 착수했으며 농촌진흥청과는 기존 오거와 전동기기를 연결하는 핀을 제작 중에 있다.

정 지도사는 토지별 지적 정보를 간편하게 입력 · 관리할 수 있는 'QR코드 전산화' 시스템도 제안했다.

이 시스템은 토양 시료 기본 정보를 QR코드로 집약시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 토양 정보를 QR코드로 라벨링화시켜 시료 봉투에 부착하는 방식이다.

토양 정보에 대한 오류 최소화는 물론 장기 보관의 용이성, 직원들의 업무시간 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는 "시료 봉투 용지에 토양 시료 정보를 직접 기재하고 내역을 일일이 대장으로 작성해 전산화시켜야하는 기존 수기 방식의 복잡성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제안을 통해 전남농업기술원은 현재 QR코드형식의 라벨링화 전산화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나주시는 전동오거 출시 및 시료봉투 QR코드 전산화 구축이 완료되면 토양 검정 작업분야 선진 우수사례 홍보와 기술 상용화에 힘쓸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동료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자 두 직원이 고안해낸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찬사를 보낸다"며 "영농 발전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연구와 정책 제안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축하했다.